



(사진:2017년 지부 출정식)

2018년 투쟁승리! 확대간부 전진대회 연다

4월 12일(목) 지부 확대간부 전진대회 연다

지부가 2018년 투쟁 승리를 위해 시동을 건다. 4월 12일(목) 13시30분 대전노동청 앞에서 전체 확대간부 동지들과 함께 전진대회를 열어 올해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 투쟁 방침이 사업장 임단협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인 만큼 장소를 지부 사업장이 아닌 대전노동청으로 결정했다.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 향상시키는 투쟁한다

앞서 지부는 3월 26일 임시대대를 열어 2018년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올해를 사업장 노동조건 향상을 포함해 건강권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투쟁의 원년으로 만들고, 노조할 권리를 가로막는 노동악법 철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2,900명 지부 조합원과 함께, 17만 금속노조 조합원과 함께 사업장 구조조정을 돌파하기로 결의했다.

지부는 그동안 노동의제발굴위원회를 통해 우리 조합원을 포

함해 지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한 지자체 및 노동청 요구안을 만들었다.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상황신고 개선, 근로자건강센터 설립 및 활용방안, 심리치료 지원, 유해물질 정보공개,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개, 미세먼지 농도 공지 등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의제를 발굴했다. 대전노동청과 관련기관을 상대로 투쟁해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2018년 초부터 노동계에 불어오는 바람이 매섭다. 봄바람이 불어야 할 계절이지만 노동자의 봄바람은 아직도 춥다. GM, 금호타이어, 중형조선소 문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개악, 지부 사업장들의 구조조정, 단협개악, 노조파괴 위협까지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작년, 재작년 지부는 규모있는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며 투쟁을 만들어왔다. 올해도 그 성과를 더 확장시켜 위력적인 지부 총파업으로 2018년 투쟁을 승리하자.

현대성우메탈지회 천막농성 돌입!

복수노조 사업장인 현대성우메탈지회가 4월 8일(일) 사측의 노조파괴에 맞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강제 전환배치를 앞세운 노조파괴 공작을 멈출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성우메탈 자본이 각종 차별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다 최근에는 강제 전환배치를 앞세워 노골적인 금속노조 탈퇴 공작을 벌였다. 이에 지회는 투쟁본부로 전환하며 완강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세웠다. 지회는 4월 4일에 사상 처음으로 사내 집회를 개최했고, 조합원들은 뜨거운 투쟁열기로 화답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강제 전환배치에 불응하고 있는 간부 3명에 대해 무임금 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 지회는 결국 천막농성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이제 막 1년된 현대성우메탈지회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투쟁체제에 돌입했다. 많은 지회들의 관심과 연대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 주요 일정 *

- ☐ **최저임금 개악 민주당 농성 돌입**
4/9(월) 13:00 대전 박범계의원 사무실 앞
4/9(월) 16:00 충북 민주당사 앞
- ☐ **중앙교섭 상견례**
4/10(화) 14시, 금속노조
- ☐ **지부 확대간부 전진대회**
4/12(목) 13시30분, 대전노동청 앞
- ☐ **지부교섭 상견례**
4/12(화) 16시, 한온 교육문화관